



Business Focus

핀테크 산업 투자 동향과 주요 10대 트렌드

February 2023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이사

T 02-2112-4089

E gyulimkim@kr.kpmg.com

곽호경

수석연구원

T 02-2112-7962

E hokyungkwak@kr.kpmg.com

최연경

책임연구원

T 02-2112-7769

E yeonkyungchoi@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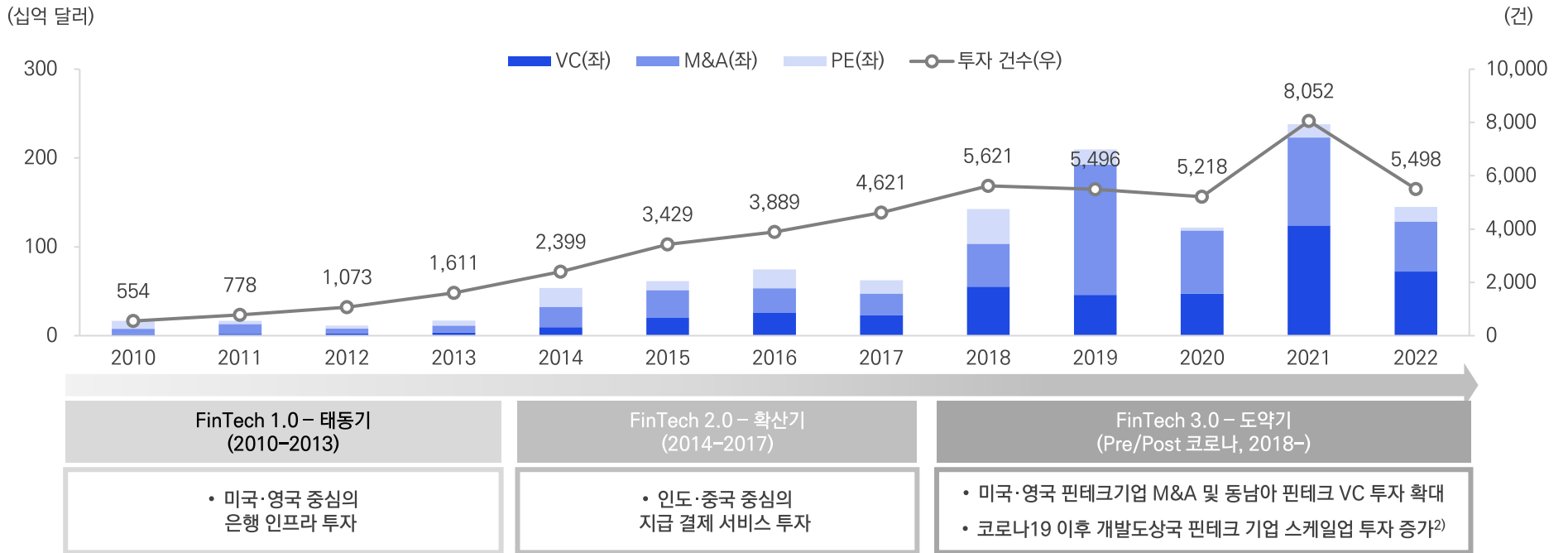
Contents

I. 핀테크 산업 투자 동향	2
II. 핀테크 산업의 주요 10대 트렌드	8
III. 핀테크 산업 전망 및 시사점	34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 받기 시작한 핀테크 산업은 스마트폰 확산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 허용 등과 함께 편의성, 혁신성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며 크게 성장.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위축된 핀테크 산업 투자는 2021년 큰 회복세를 보이며 스케일업 투자가 확대. 다만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핀테크 투자는 전반적으로 약세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Source: Pitchbook,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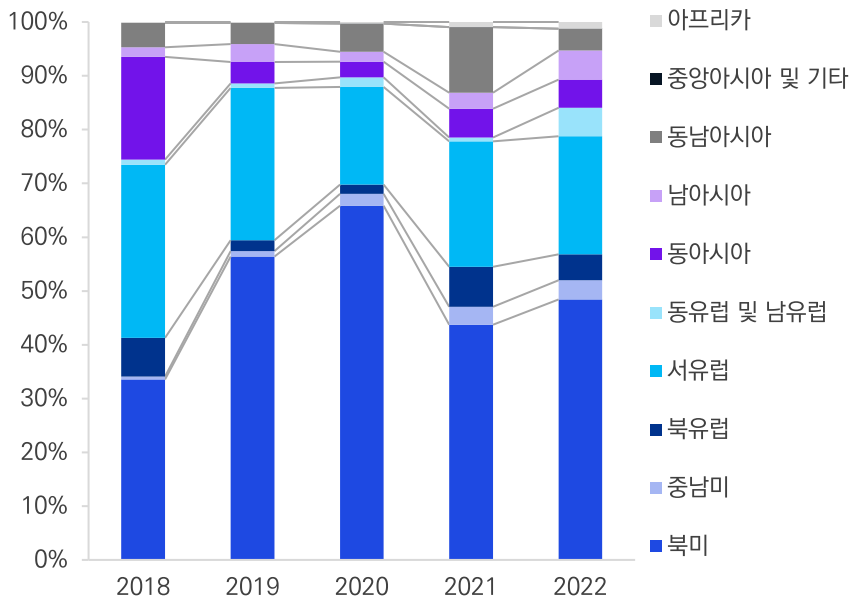
Note 1: 2022.11.3. 추출 기준, 벤처투자(VC), 사모펀드(PE) 및 M&A를 포괄, Completed Deal 기준이며, 2022년은 2022.10.31.까지임

Note 2: 2021년 투자 규모 Top 10 중, Gojek의 Tokopedia 인수, 런던증권거래소의 Refinitiv 인수, Robinhood 추가 VC 투자 등 기존 핀테크 스케일업 중심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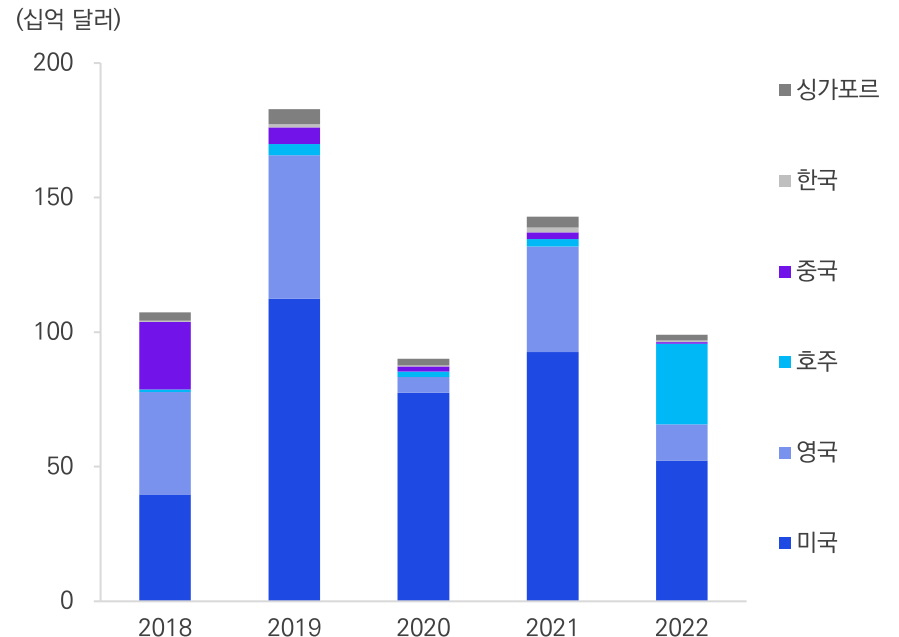
북미, 유럽 등지의 핀테크 기업 투자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 이후 P2P 대출, 제3자 결제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중국 핀테크 투자 급감.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핀테크 역할이 확대되며 투자자의 주목을 받음. 2022년에는 전반적 투자 약세 속 호주 등에서 대형 M&A 발생

지역별 핀테크 투자 동향



Source: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22.11.3. 추출 기준, 벤처투자(VC), 사모펀드(PE) 및 M&A를 포괄, Completed Deal 기준이며, 2022년은 2022.10.31.까지임

주요 국가별 핀테크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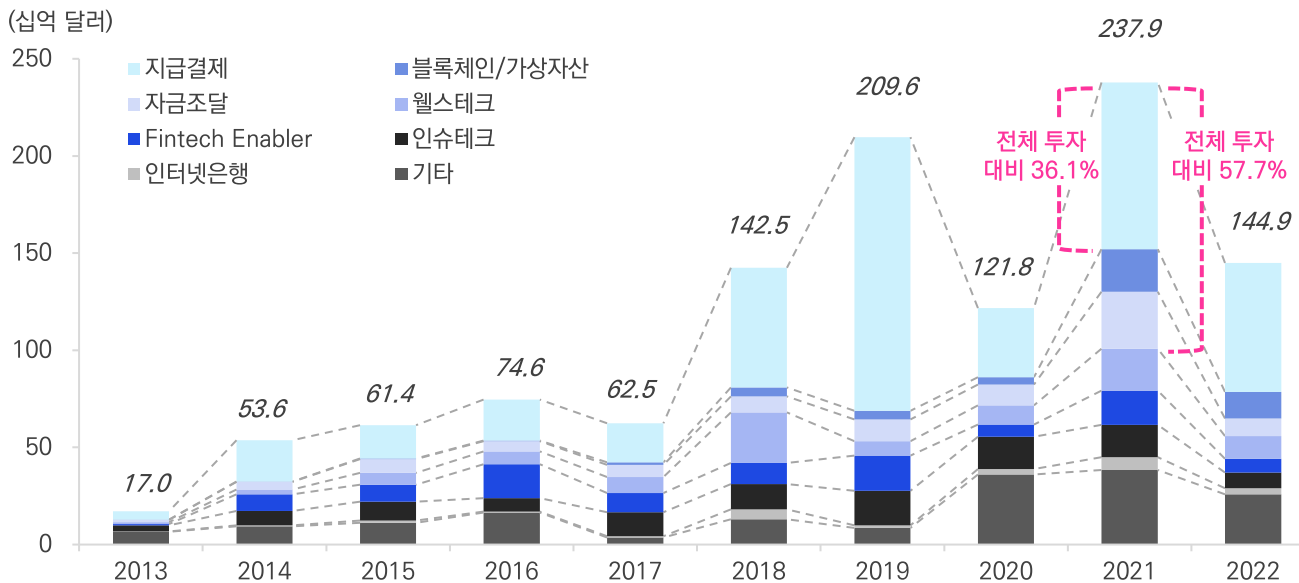
Source: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22.11.3. 추출 기준, 벤처투자(VC), 사모펀드(PE) 및 M&A를 포괄, Completed Deal 기준이며, 2022년은 2022.10.31.까지임, 2) 본 그래프의 포함 대상 국가는 글로벌 핀테크 투자 비중이 큰 미국, 영국, 호주,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6개 국가에 한정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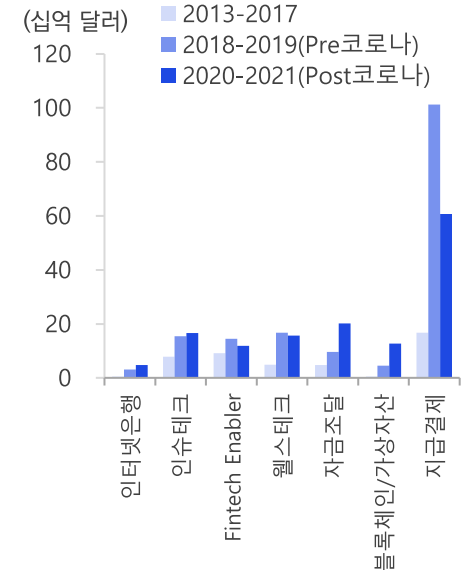
핀테크 부문별 투자 추이는 고객과의 접점이 가장 빈번하고 경쟁 및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의 규제 정비가 이루어진 지급결제 부문이 투자를 주도. 다만 핀테크 산업의 성숙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웰스테크, 자금조달 섹터 등 핀테크 산업 전영역에 걸쳐 투자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섹터별 투자규모 대형화 추세 또한 뚜렷함

핀테크 섹터별 투자 추이 및 평균 투자 추이

〈핀테크 섹터별 투자 추이〉



〈섹터별 평균 투자 추이〉



Source: Pitchbook,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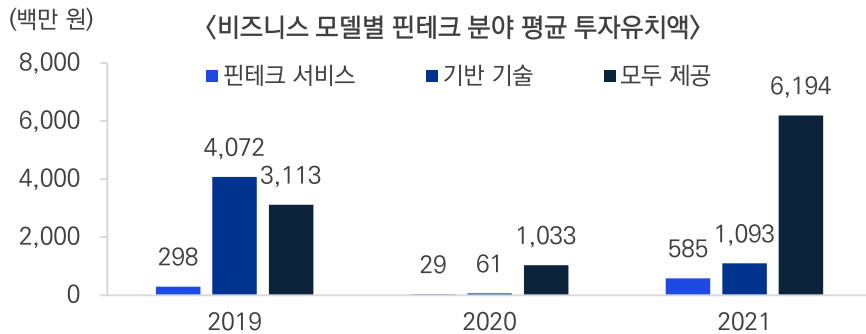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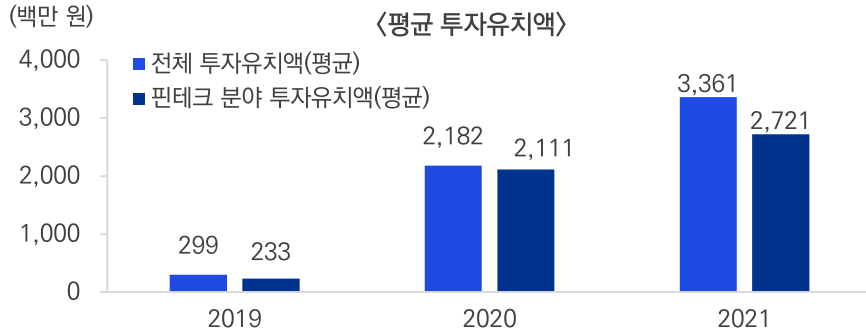
Note 1: 2022.11.3. 추출 기준, 벤처투자(VC), 사모펀드(PE) 및 M&A를 포함, Completed Deal 기준이며, 2022년은 2022.10.31.까지임

Note 2: 인터넷은행, 지급결제, 웰스테크, 자금조달, 인슈어테크, 블록체인/디지털자산 부문은 핀테크 기업 중 B2C 기업에 한정하였으며, FinTech Enabler는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술기반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중 B2B 기업으로 정하여 중복성을 최소화함

국내 핀테크 투자 동향

2020~2021년 국내 핀테크 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성 등으로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이 이전보다 대폭 증가. 다만 2021년 5월 케이뱅크의 1조 2,500억 원 유상증자, 2020~2021년 토스 계열사의 약 1.4조 원 투자 유치 등 빅테크와 대형 핀테크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국내 핀테크 투자 추이



Source: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2.12), '2021 핀테크 산업현황 조사'
 Note: 전체 투자유치액(평균)은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핀테크 관련 기업의 전체 투자유치액 평균을 뜻함

케이뱅크, 2021년 약 1조 2,500억 원 유상증자

신한대체투자운용, 한화생명, MBK PARTNERS, MG새마을금고

국내 금융사, PE 운용사 등

인터넷전문은행

- 케이뱅크, 디지털자산 거래스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독점 제휴로 고객 규모 증가를 통한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으며, 2021년 최대 규모 투자를 유치

토스 계열사, 2020~2021년 약 1조 4,185억 원 투자 유치

toss (비바리퍼블리카) 약 6,660억 원

toss bank 약 5,500억 원

toss payments (LG U+ PG사업 인수) 약 2,02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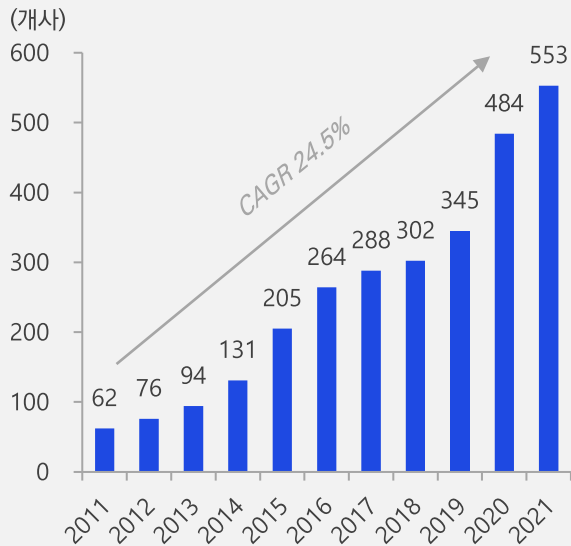
- 2020~2021년 국내 금융사 및 14개 외국계 VC로부터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스케일업(Scale-up)으로 금융시장 내 혁신 촉진제로 성장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Appendix 1] 국내 핀테크 기업 현황

2021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2011~2021년 동안 연평균 24.5% 성장함. 글로벌 동향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지급결제(21.9%), FinTech Enabler(40.5%) 부문을 주축으로 전 영역에서 핀테크 기업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2019년 대비 핀테크 기업 사업 모델이 고도화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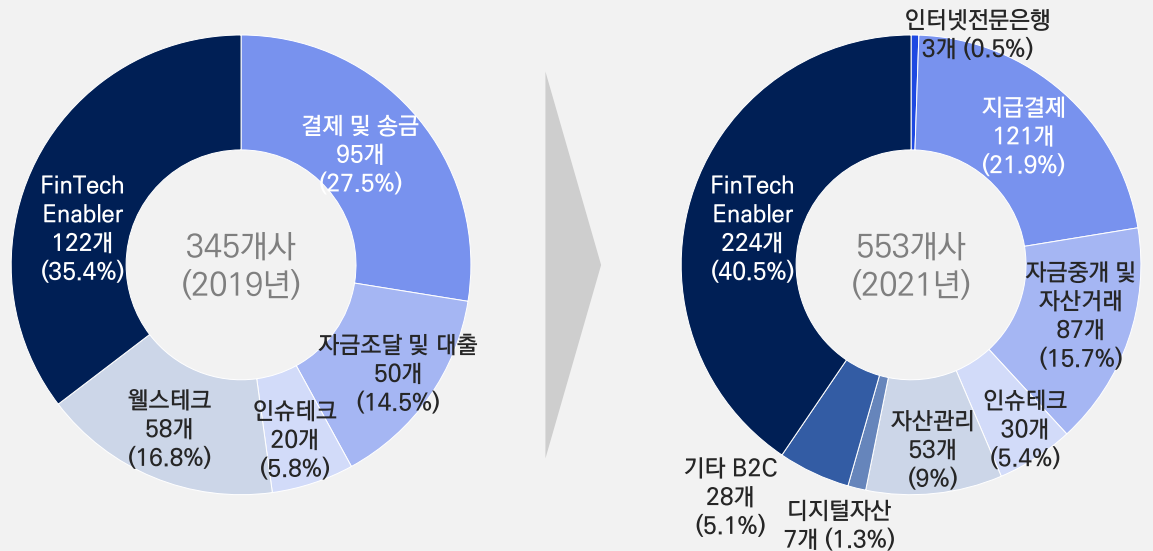
국내 핀테크 기업 수 추이



-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2011년 62개사에서 2021년 553개사로 집계되어 연평균 24.5% 성장

Source: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 각연도
 Note: 인터넷은행의 경우, '2020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에 미포함

국내 핀테크 기업 부문별 비중



- 2021년 기준 지급결제 및 FinTech Enabler 부문이 전체 핀테크 산업 내에서 62.4%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금중개 및 자산거래(15.7%), 자산관리(9.0%) 부문이 뒤를 이음
- 2019년 대비 핀테크 산업 내 사업 모델이 분화되고 고도화되는 모습

Source: 2019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2019), 2021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2022)
 Note: 핀테크 분류 기준 변경으로 핀테크 부문이 상이할 수 있음

Contents

I. 핀테크 산업 투자 동향	2
II. 핀테크 산업의 주요 10대 트렌드	8
III. 핀테크 산업 전망 및 시사점	34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빅 블러 시대 본격화 – 핀테크의 진화와 재편

팬데믹으로 인해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핀테크 산업이 진화·재편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내외 핀테크 관련 보고서와 기사 등을 토대로 핀테크 산업의 주요 트렌드 10가지를 제시

핀테크 주요 10대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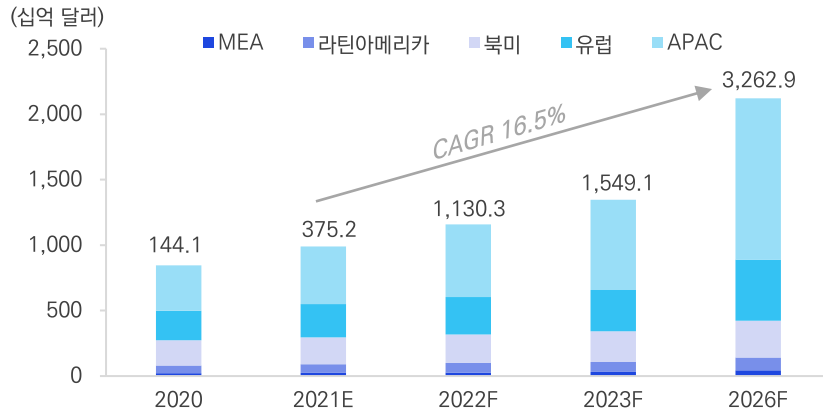
<p>1 디지털 채널 대중화와 마이데이터 등 오픈 파이낸스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택트(Untact) 소비 문화 확산과 비대면 서비스 전환 • 오픈뱅킹 시대 본격화 및 각국 오픈 파이낸스 정책으로 개방형 혁신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경험과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베디드 솔루션 도입이 늘어남 • 임베디드 금융 관련 투자가 증가하며 결제·보험 중심으로 활용 확대 전망 	<p>필수가 된 임베디드 금융 6</p>
<p>2 핀테크 기업의 IPO와 밸류에이션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데믹 기간동안 리딩 핀테크 기업의 기업공개(IPO)가 활발 • 2022년 들어 주요국 긴축 통화정책 영향 등으로 성장주 밸류에이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Z세대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 중심으로 BNPL 수요 급증 • 금리인상 등으로 BNPL 기업 부실화 가능성 대두로 규제 필요성 제기 	<p>BNPL의 성장과 리스크 부상 7</p>
<p>3 플랫폼 경쟁의 본격화 – 슈퍼앱 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 중국 등 핀테크 플랫폼은 생활 속 인프라 역할로 확장 • 미국, 영국 핀테크 기업 또한 종합금융플랫폼 전략으로 스케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금융사들은 핀테크와 협업 및 투자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 금융 서비스 확충 도모 	<p>빅블러 시대 핀테크 파트너십 확대 8</p>
<p>4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과 취약성 노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자산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외연 확장에 성공 • 글로벌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규제 마련 등과 맞물리며 투자심리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인프라 기술 발전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금융도 진화 • BaaS, 임베디드 금융 트렌드와 함께 핀테크 인프라 스타트업도 성장 예상 	<p>디지털금융 인프라 진화 – 신기술 활용성 증대 9</p>
<p>5 변곡점에 선 규제기관 – 디지털 금융 규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각국 정부는 친혁신 정책 •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로 시장경쟁과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 규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데믹을 계기로 경제·사회적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 재확인 • ESG 부상으로 ESG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는 핀테크 기업이 주목 	<p>ESG에 스며드는 핀테크 10</p>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Trend 1. 디지털 채널 대중화와 마이데이터 등 오픈 파이낸스 확장 (1/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대면 접촉 제약 등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언택트(Untact) 소비 문화가 확산되며 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 전 세계적으로 비현금 거래가 대중화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시장에서도 금융 관련 디지털 채널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

전 세계 비현금 거래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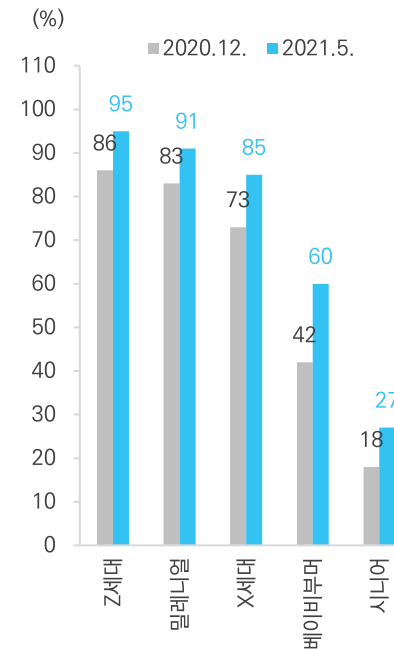


- 코로나19는 고객과 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했으며, 편의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비현금 결제가 증가
- Capgemini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글로벌 비현금 거래 규모는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2026년까지 전 세계 비현금 거래 규모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e-머니, 모바일 월렛, QR코드 등의 새로운 결제 방식은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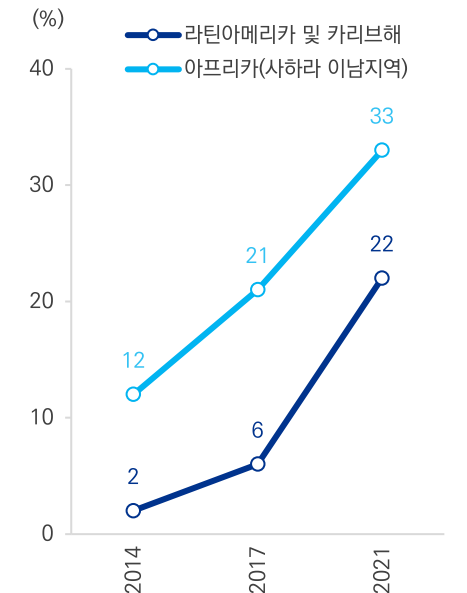
Source: Capgemini(2022), 'World Report Series Payments 2022'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금융 서비스 관련 디지털 채널 이용 확대

<미국의 세대별 모바일뱅킹 침투율>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모바일머니 계좌 보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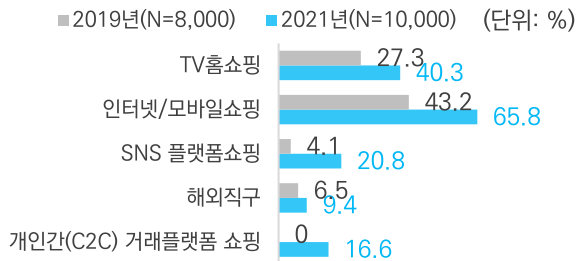
Source: (좌) Statista, (우) World Bank(2021),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21'

Trend 1. 디지털 채널 대중화와 마이데이터 등 오픈 파이낸스 확장 (2/3)

국내 소비자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비 채널이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전 연령대의 디지털 채널 활용이 확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비대면 결제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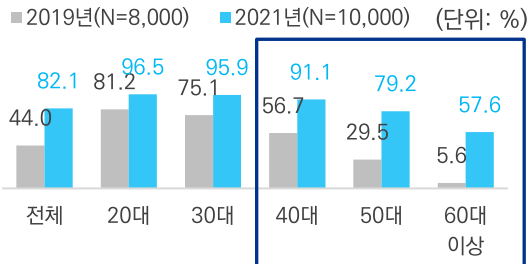
국내 디지털 소비 거래 유형별 및 연령대별 현황

〈거래 유형별 디지털 소비 현황〉



- 국내 디지털 소비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모바일쇼핑(65%), TV홈쇼핑(40.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특히 SNS 플랫폼쇼핑은 2019년 대비 약 5배 증가

〈연령대별 디지털 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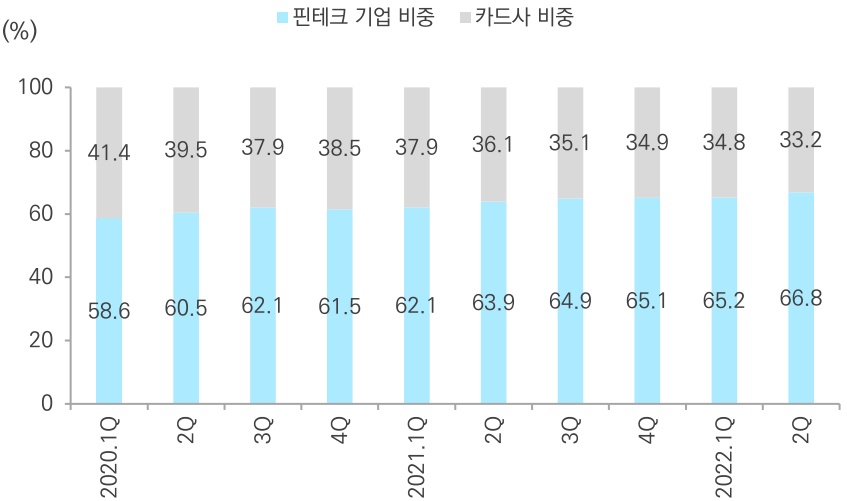


- 전연령대에서의 디지털 소비 이용률이 높아짐 (2019년 44.0% → 2021년 82.1%)
- 특히 코로나19 이후 MZ세대 외 50대는 2.6배, 60대 이상은 10배 이상 디지털 소비가 급증

Source: 한국소비자원(2021.11.08),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디지털로 소비해, 코로나19 이후 2배 확대'

국내 사업자별 제공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

(%)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비대면 결제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은 2020년 2분기 60.5% 2021년 2분기 63.9% 2022년 2분기 66.8%로 지속 증가 추세

Source: 한국은행(2022.09.28), '2022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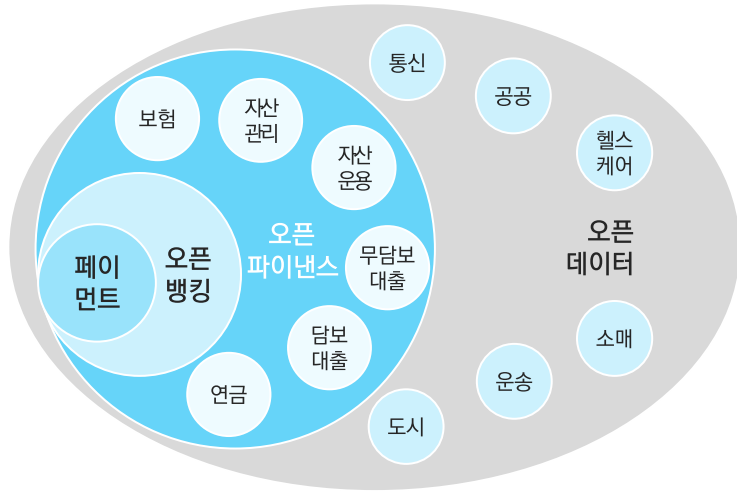
Note 1: 핀테크 기업은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카드사 이외의 ICT업체 등

Note 2: 개인 및 법인 신용·체크카드(국내 가맹점) 금액(일평균) 기준(잠정치)

Trend 1. 디지털 채널 대중화와 마이데이터 등 오픈 파이낸스 확장 (3/3)

각국 정책당국은 지급결제 제도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데이터의 개방 범위를 확장하여 핀테크 기업의 제도권 금융 진입기회와 금융업 내 경쟁 촉진·제휴 확대를 통해 오픈 बैं킹을 넘어 오픈 파이낸스를 지향. 이를 통해 비금융사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활동 영역이 커지고 더욱 크고 강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

오픈뱅킹 - 오픈 파이낸스 - 오픈 데이터 관계



데이터 보호/공유에 관한 국가별 접근 방식

		EU	한국	미국	중국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광범위		일부	광범위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	○	○	○
	용도 적합성	○	○	-	○
	안전성	○	○	○	○
	데이터 권리	광범위		일부	
	동의 및 접근성	○	○	-	○
	수정 및 삭제	○	○	-	○
	정보 이동권	○	△	-	○
데이터 공유	오픈뱅킹	부분적		초기	
	접근방식	사전적/규범적	정부주도	시장중심적	

- 국내외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는 주요 배경 중 하나는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 기조라 볼 수 있음. 각국 정책당국은 지급결제 부문 제도 정비에 이어, 오픈뱅킹을 통해 기존 금융업의 경쟁 구도를 재편
- 또한 금융업 내 데이터 공유와 개방은 지급결제뿐만 아니라, 보험, 자산관리/운용, 대출, 연금 등 다양한 금융업 하위 섹터까지 확장. 이 같은 오픈 파이낸스 기조는 개방된 데이터를 전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짐

- 글로벌 각국 정책당국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확보와 데이터 이동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데이터 개방 범위를 넓힘으로써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편리하고 확장적인 금융 서비스 고도화 등을 모색. 대표적으로 EU에서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PSD2를 배경으로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22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됨
- 오픈 파이낸스 이니셔티브와 함께 데이터보호 정책/규제 등을 통해 정보 주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데이터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Source: Statista,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BIS(2021.09.29), 'Big tech regulations: what is going on?', 삼정KPMG 경제연구원

Trend 2. 핀테크 기업의 IPO와 밸류에이션 조정 (1/2)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리딩 핀테크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 중 기업공개(IPO)를 활발히 진행. 미국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브라질 누뱅크, 인도 페이티엠, 한국 카카오뱅크, 영국 와이즈 등 다양한 국가의 핀테크 유니콘이 IPO에 성공했으며 지급결제부터 디지털자산 플랫폼까지 섹터 또한 다양성을 보임

2021년 IPO에 성공한 주요 리딩 핀테크 기업



기업, 소비자들의 핀테크 서비스 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필요성 증가



기술력과 플랫폼을 갖춘, 잠재적
가치를 지닌 핀테크 기업이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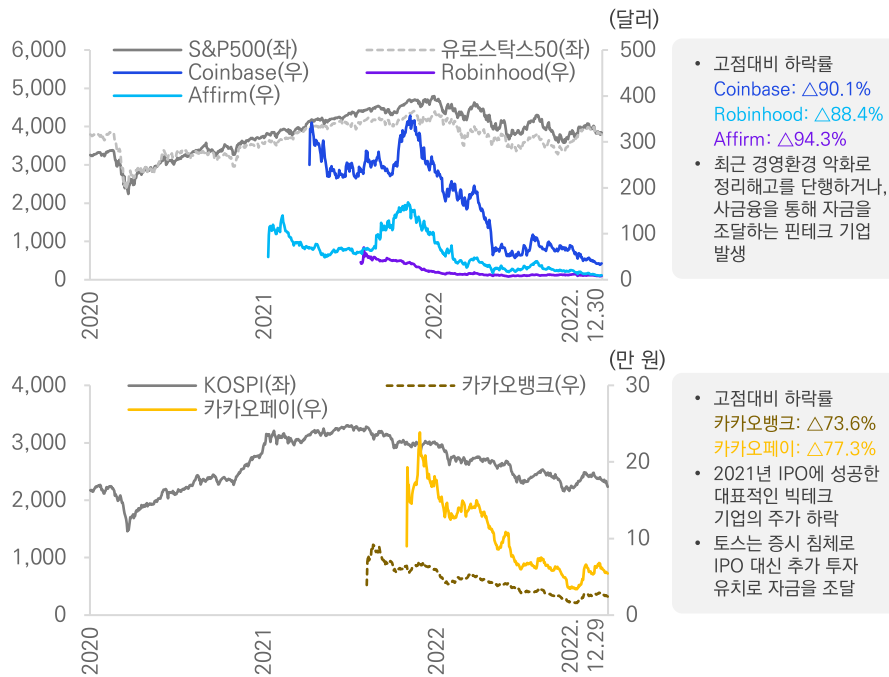
기업명	국가	설립연도	주요 사업분야	기업공개일	기업가치 (십억 달러)
코인베이스(Coinbase)	미국	2012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2021.4.14	85.8
누뱅크(Nubank)	브라질	2013	디지털 은행	2021.12.9	41.5
로빈후드(Robinhood)	미국	2013	주식 거래 플랫폼	2021.7.29	32.0
토스트(Toast)	미국	2012	POS, 결제 프로세싱 플랫폼	2021.9.22	20.0
페이티엠(Paytm)	인도	2009	디지털 결제	2021.11.18	18.7
카카오뱅크(Kakaobank)	한국	2016	디지털 은행	2021.8.6	16.1
마르케타(Marqeta)	미국	2010	맞춤형 카드 발급	2021.6.9	15.2
와이즈(Wise)	영국	2010	해외송금	2021.7.7	12.2
어firm(Affirm)	미국	2012	BNPL	2021.1.13	11.9
브라이트 헬스(Bright health)	미국	2015	건강보험	2021.6.24	11.1

Source: Statista,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Trend 2. 핀테크 기업의 IPO와 밸류에이션 조정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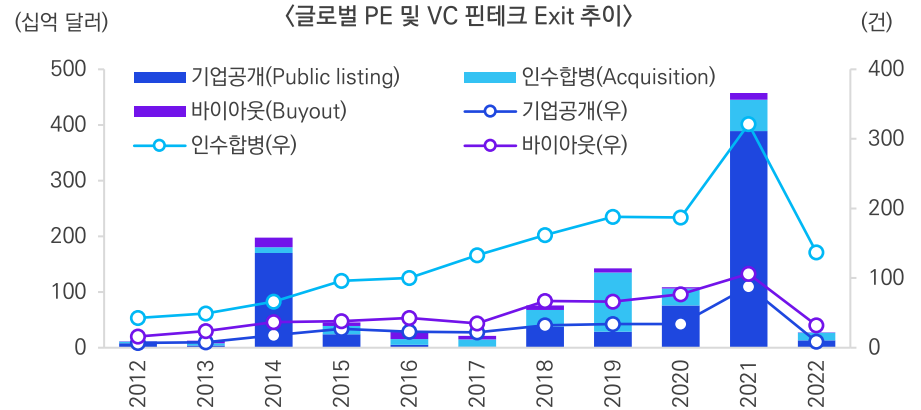
그러나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 핀테크를 비롯한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조정되면서 최근 IPO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황.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당분간 증시 약세가 지속되면서 2022~2023년 IPO를 통한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회수(Exit) 및 추가 자금조달이 제한적이며, 핀테크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전망

주요 증시 및 핀테크 주가 추이



Source: Bloomberg

핀테크 투자 회수(Exit) 및 추가 자금조달 환경 악화



‘1조원 투자’ 흔들… 스타트업 돈줄 얼어붙었다

6월 시리즈 투자금, 작년보다 27% 줄어
상반기 M&A 투자금도 1년 새 4분의 1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스타트업 투자가 얼어붙고 있다. 매달 1조 원 이상 규모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됐던 시리즈 투자가 흔들리고 있고,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Source: (상) Pitchbook, Q2 2022 Fintech Report, (하) 조선비즈(2022.07.03), ‘1조원 투자’ 흔들… 스타트업 돈줄 얼어붙었다’ 일부 인용

Note: 그래프의 2022년은 6월 30일까지 기준, 막대그래프는 규모, 실선은 건수임

Trend 3. 플랫폼 경쟁의 본격화 – 슈퍼앱 부상 (1/2)

금융 서비스는 ‘번들링(Bundling)-언번들링(Unbundling)-리번들링(Rebundling)’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는 ‘슈퍼앱(Supper-App)’으로 진화. 특히 동남아시아, 중국 등지의 플랫폼은 일상생활과 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장하며 생활 속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아시아의 핀테크 슈퍼앱 대표 사례



‘현금 없는 중국’을 시작한 온라인 금융 기업

- 알리페이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뱅킹, 자산관리, 신용평가 등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
- 중국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하여 크게 성장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시작한 플랫폼 확장

-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2021년 1.7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 기록, 간편결제 서비스 ‘고페이(Go Pay)’ 운영
- 승차 공유, 결제, 음식배달 등 20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



인도 최대의 전자지갑(e-wallet) 서비스 기업

- QR코드 기반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 지급결제는행 라이선스 획득으로 은행 서비스도 제공
- 2021년 기준 3.3억 명의 개인 이용자, 1,000만 여개의 법인 사용자 보유




아세안 지역 최대 핀테크 플랫폼으로 도약

- 자사 차량공유 플랫폼에 결제, 대출,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 중
- 2021년 기준 1.9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 동남아시아 8개 국가 및 4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 제공



국내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


- 대표적인 국내 금융 핀테크 통합 플랫폼으로, 송금, 은행업무, 결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과 모빌리티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



베트남 국민 전자결제 앱

-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자지갑(모바일 월렛) 핀테크 기업으로, 전화번호를 통한 간편한 송금 서비스로 인기
- 보험상품 연계, 영화, 항공권, 호텔 예약, 기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모 앱에서 제공

국내 주요 금융사의 슈퍼앱 대응 동향

기업	슈퍼앱 관련 전략
KB금융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에 증권, 카드, 손해보험 등 6개 계열사 서비스를 탑재하고 서비스 범위 확대
신한금융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한은행 앱 ‘솔(SOL)’과 신한카드 앱 ‘신한플레이’ 중심 2023년 여름에 신한 유니버설 간편 애플리케이션 출시할 계획 발표
하나금융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은행 중심의 종합금융플랫폼 ‘하나원큐(1Q)’와 하나카드 중심의 결제·라이프스타일플랫폼 ‘원큐페이’ 중심으로 서비스 통합 및 고도화
우리금융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은행 앱 ‘우리WON뱅킹’을 중심으로 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금융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등 재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그룹 통합 앱 전략, 비금융생활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Trend 3. 플랫폼 경쟁의 본격화 – 슈퍼앱 부상 (2/2)

동남아시아, 중국 등 아시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슈퍼앱 전략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확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이는 고객의 앱 피로도 절감, 빅데이터 누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으로 핀테크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주요 전략으로 지속 전망. 미국, 영국의 핀테크 기업은 종합금융플랫폼 전략을 통해 스케일업에 성공했다는 특징

미국 및 유럽 핀테크 슈퍼앱 동향과 대표 사례

서비스	기업명	디지털 지갑				투자/뱅킹				BNPL	
		페이팔 (Paypal)	벤모 (Venmo)	캐시앱 (Cash App)	숍페이 (Shop Pay)	소파이 (SoFi)	차임 (Chime)	코인베이스 (Coinbase)	로빈후드 (Robin hood)	어핀 (Affirm)	클라르나 (Klarna)
상점 현금잔고 & 카드		■	■	■	■	■	■	■	■	■	■
QR코드 결제		■	■								
전자상거래 결제		■	■		■				■	■	
P2P 송금		■	■	■		■	■				
은행계좌 즉시 송금		■	■	■				■	■		
직불카드		■	■	■		■	■	■	■	■	
신용카드		■	■			■	■				
예금계좌		■	■	■		■	■				
저축계좌		■				■	■	■	■		
공과금 결제		■				■	■				
급여이체		■	■	■		■	■	■			
BNPL		■		■	■				■	■	
소비자 대출		■		■		■			■	■	
디지털자산 거래		■	■	■		■		■	■	■	
주식 거래		■	■	■		■		■			
예산, 신용관리 등						■	■				
쇼핑		■	■	■	■				■	■	
로열티프로그램/리워드		■	■	■		■		■	■	■	



Revolut

글로벌 금융 슈퍼앱을 지향하는 페이먼트 핀테크

- 해외결제/송금 서비스로 시작한 이후 공격적으로 서비스 및 해외 진출 확대
- 급여, 카드, 리워드, 구독, 기부, 반려동물 보험,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출시



Square
BLOCK

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에서 블록체인까지 확장

- 카드 결제 데이터 기반 대출, 판매 및 재고 추적, 가상자산 투자, 리워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2021년 12월 'Square'에서 'Block'으로 사명 변경, 사업 확장 의지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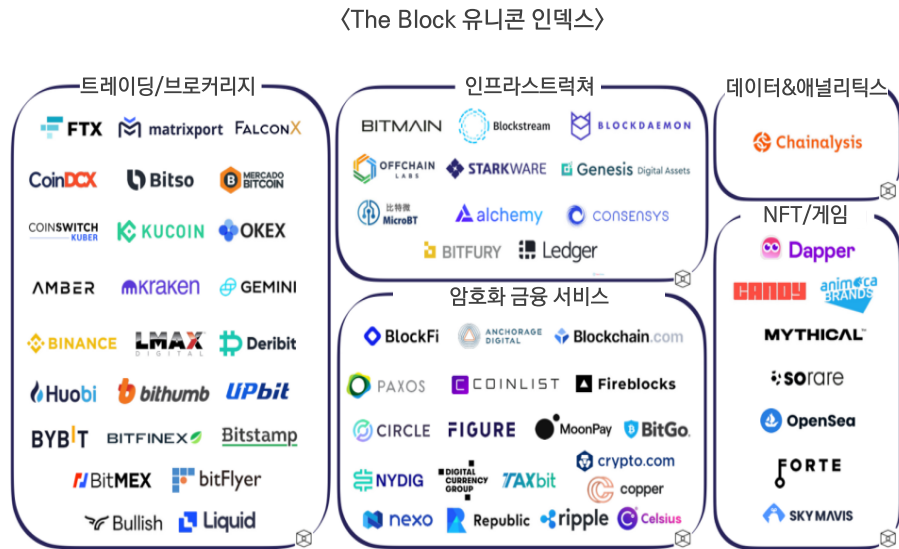
Source: 각사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022년 1월 서비스 기준이며 푸른 색(■)은 제공중인 서비스, 붉은 색(■)은 계획/고려중인 서비스를 뜻함

Trend 4.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 및 취약성 노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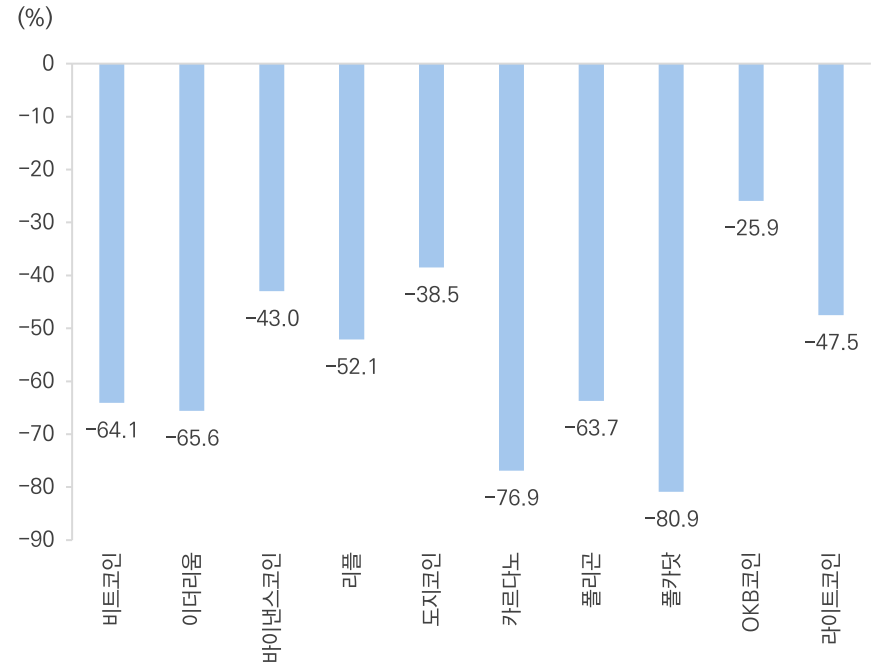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자산은 풍부한 유동성, 위험자산 투자 수요 및 비대면 기술에 대한 관심 등으로 크게 주목 받았으며,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 등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외연을 확장. 그러나 2022년 들어 글로벌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취약성이 부각되며 디지털 자산 가치 하락과 규제 정비 필요성 증대

2021년 디지털자산 관련 유니콘 및 사업 영역



Source: The Block(2021.12), '2022 Digital Asset Outlook'

2022년 주요 디지털자산 수익률 하락



Source: The Block(2022.12), '2023 Digital Asset Outlook'
 Note: 스테이블코인 제외, 2022.11.30.까지 기준

[Appendix 2] 2021~2022년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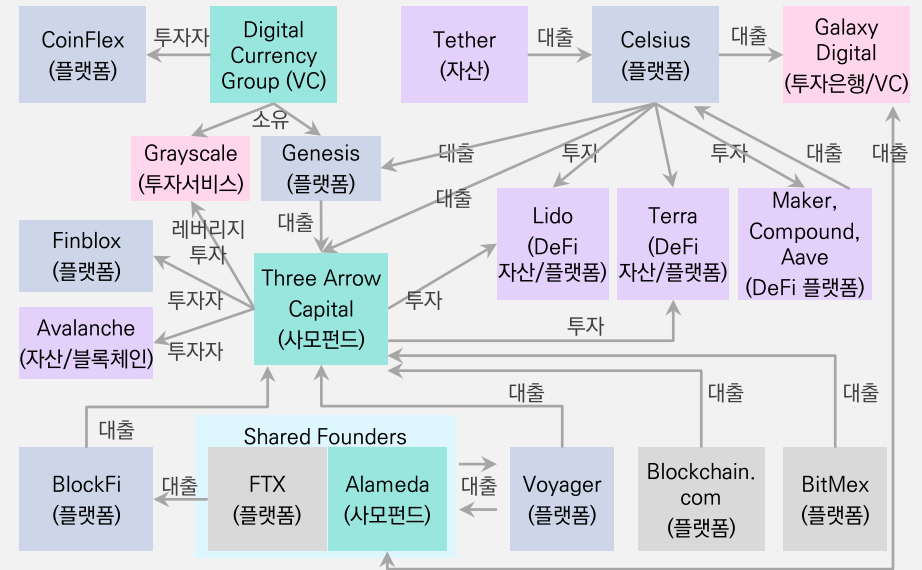
2021년은 디지털 자산이 대중화(Mass Adoption)된 시기라면, 2022년 들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적 통화정책, 루나-테라 폭락과 같은 연이은 악재의 영향으로 셀시우스(Celsius), 쓰리애로우 캐피탈(3AC) 등이 파산하는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이 재편성되며 조정을 겪고 있음

비트코인 가격과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이벤트



Source: Investing.com, 삼성KPMG 경제연구원

쓰리애로우 캐피탈(3AC) 및 타 블록체인 프로토콜 간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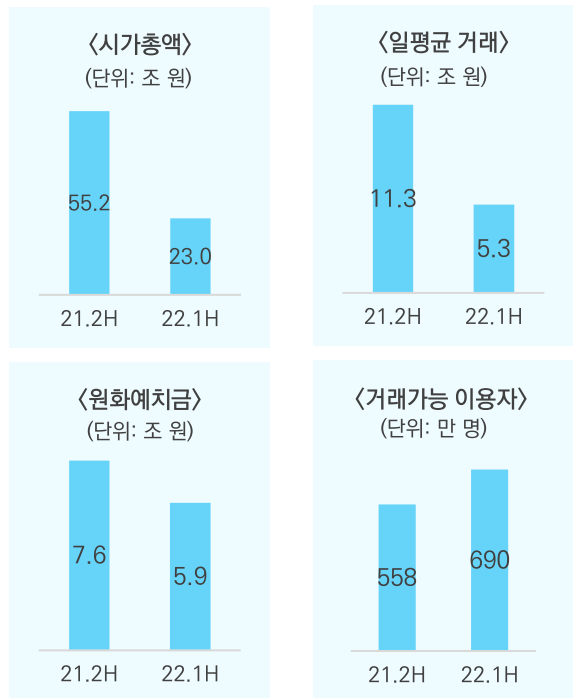
• 테라-루나 사태 및 3AC 파산 등의 사건은 디지털 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커니즘의 허구성, 투기적 요소가 많은 차입거래, 리스크를 생태계에 신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 간 지나치게 높은 상호 연계성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많은 불안전성 및 취약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Sourc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2022), 'Report on Digital Asset Financial Stability Risk and Regulation'

Trend 4.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 및 취약성 노출 (2/2)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도 팬데믹 동안 저금리, 유동성 등에 힘입어 2021년 말 55.2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NFT, 부동산 및 미술품 STO 등 디지털 기반 투자 상품 관련 관심이 높아짐. 그러나 글로벌 긴축 가속화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체계적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 증대

국내 디지털 자산 실태조사 결과



Source: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2022.09.27),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 자산 기반 주요 서비스

분류	기업명	관련 사업
NFT	엔씨소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초 '리니지W' 글로벌판에 NFT 기술 탑재 계획 발표 2022년 11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미스틴랩스에 전략적 투자(1,500만 달러)
	하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두나무와 합작법인 '레벨스(LEWELS)' 설립, 2022년 10월 디지털 컬렉터블 플랫폼 '모먼트카'를 위버스와 연동하여 독점 콘텐츠 제공
De-Fi	신한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7월 De-Fi 핀테크 '델리오'와 MOU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협업 예정
	KB국민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1월 블록체인 투자기업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지랩스와 합작법인 KODA(한국디지털에셋)를 설립하여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에 참여
조각투자	카사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유통
	뮤직카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수익 공유 플랫폼
	에이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실물 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STO 플랫폼 서비스 제공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주요 쟁점 사항

STO 증권형토큰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 국내 STO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되어 왔으며, 입법화되지는 못했음
- 2023년 1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이 STO 허용을 발표한 가운데, 2023년 2월 초 세부지침이 공개될 예정

ICO 코인공개(Initial Coin Offering)

- 최근까지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어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ICO 진행하여 유통
- 다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ICO 허용을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국내 ICO 가능성 증대

NFT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 저작권 침해, 투자자 보호 등에 대응할 방안 마련 시급

DeFi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 트래블룰* 시행 이후 개인지갑 송금이 어려워지며 시장 위축

*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가 자금 추적 규제로 권고한 안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함

Source: 자본시장연구원(2022.07.28),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ppendix 3] 글로벌 주요국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세금 이슈 등이 발생하며 각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이루지는 양상. 2022년 7월 EU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MiCA' 통과, 2022년 6월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RFIA?)' 발의 가운데, 한국은 디지털 자산 규제가 확립되거나, 적극적 입법을 고려하는 국가를 참고하여 비즈니스 모델별로 규제 입법을 고려 중

		한국	미국	유럽연합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화폐	ICO	검토 IEO 방식, 순차적 허용	허용 SEC 증권법 기준 적용 (예외 가능)	예정 EU 내 설립법인이 신고만으로 가능	허용 기존 금융시장 기준 적용	허용 ICO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법 적용	허용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금지 CBDC 실사용 테스트 완료
	STO	예정 '23년 1월 STO 가이드라인 예정	허용 SEC 증권법 기준 적용	허용 EU 회원국증권시장 규제법 적용	허용 기존 금융시장 기준 적용	허용 증권법 적용	허용 기존 금융시장 기준 적용	금지 선언적 금지
거래소	설립 및 운영	2020 ~ '20년 특금법 시행 및 FIU 신고수리	2015 ~ '15년 뉴욕법 디지털 자산규정제정	예정 '24년 MCA 시행예정 (유럽증권시장감독청)	2020 ~ '21년 DLT법 시행	2019 ~ '19년 지불서비스법 제정	2019 ~ '19년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 제정	금지 선언적 금지
	자금세탁방지 (Travel Rule)	시행 '22년 3월 적용	시행 '20년부터 적용	시행 '22년 3월 관련 법안 ³ 통과	시행 '20년부터 적용	시행 '20년부터 적용	시행 '22년 4월 적용	미시행 선언적 금지
서비스	투자상품	미승인	승인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승인 비트코인 주식 ETF 승인	승인 비트코인 ETP	승인 비트코인 투자신탁 펀드 승인	미승인	미승인
	투자자보호	예정 디지털자산 기본법 '23년 제정예정	예정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 발의	예정 '24년 MiCA 시행예정	존재 법적소유권인정, 높은 법적보호수준	예정 소비자 보호 조치 도입 검토	존재 기존 법 개정을 통한 보호	논의 선언적 금지

Source: 삼정KPMG Digital,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2) RFIA(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3) 자금 및 특정 가상화폐 송금에 관한 정보 규정안(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

Trend 5. 변곡점에 선 규제기관 – 디지털금융 규제 정비 (1/2)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주요국 정부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를 펼치며 親혁신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왔음. 대표적으로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주요국 오픈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및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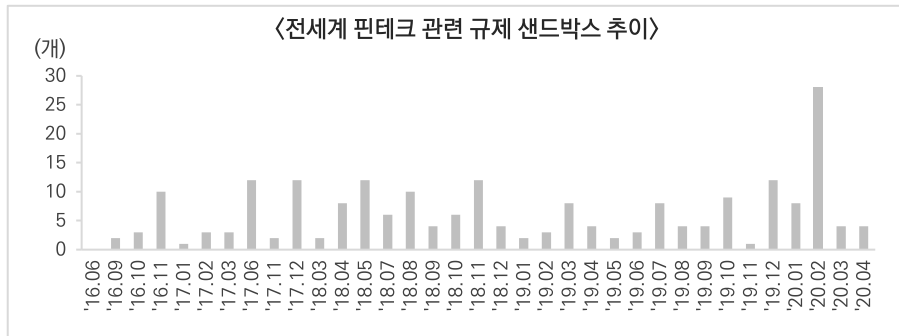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국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

 <p>합리적 규제를 통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 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및 혁신 활성화 촉진 및 ICT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 	 <p>글로벌 금융 허브에서 혁신 금융 성지로 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샌드박스, 오픈뱅크 등 정부 지원과 글로벌 금융 허브 환경 활용
 <p>규제 최소화를 통한 핀테크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데이터 개방과 규제 최소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촉진 	 <p>사후 규제 원칙에 기반한 규제 완화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과 발전을 위한 '2022-2025년 핀테크 개발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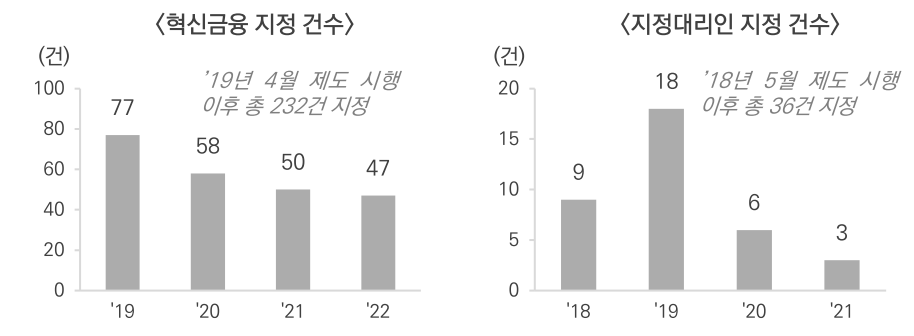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종류 및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종류 및 특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
제도 특징 요약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범영업 및 임시 규제 특례 적용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 받아 시범운영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게 위탁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여부 확인
서비스 운영 형태	독자 운영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서비스 운영 주체: 핀테크 기업)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서비스 운영 주체: 금융회사)	-



Source: World Bank(2020.11.01), 'Key Data from Regulatory Sandboxes across the Glob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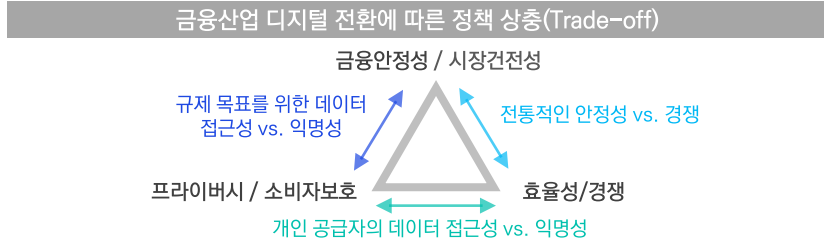


Source: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금융위원회(2022.11.09),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및 주요성과'

Trend 5. 변곡점에 선 규제기관 – 디지털금융 규제 정비 (2/2)

금융산업에서 빅테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에서는 시장경쟁과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한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음. 정책 목표간 상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각국은 금융 및 규제 환경에 따라 상이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 중임. 국내에서도 금융사·빅테크의 상생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정비가 논의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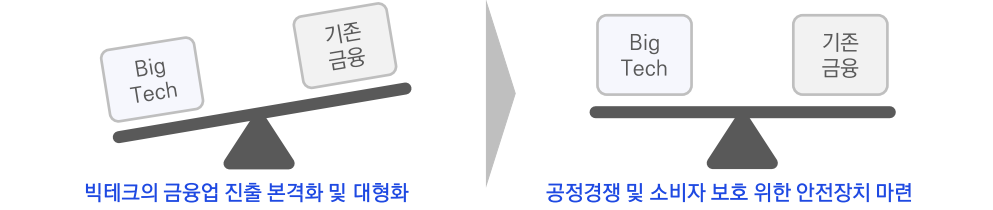
디지털 금융환경에서의 정책 상충 및 주요국 규제 접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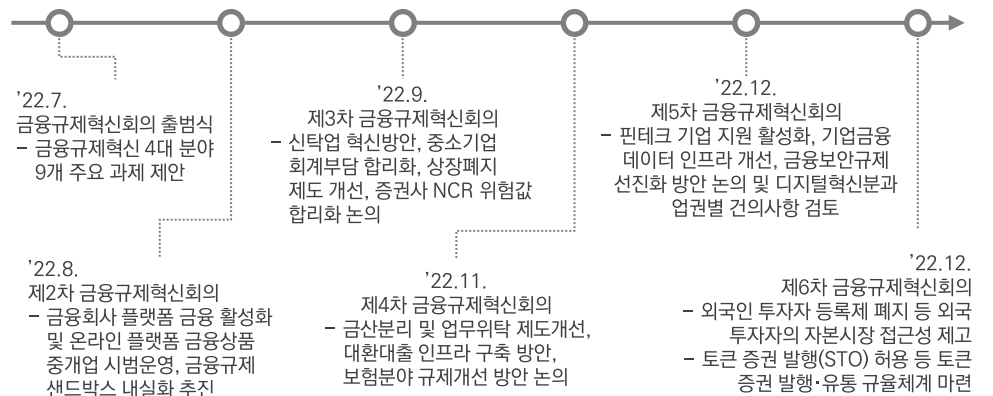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접근 방식	
<p>혼합식 접근 (Hybrid approach)</p>	<p> • 독점금지법을 통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경제력 집중 차단을 추진</p> <p>• FSOC에서 지정하는 기관중심 접근 방식과 데이터 공유 등 특정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기반 규제를 혼합하는 모습</p>
<p>행위기반 접근 (Activity-based approach)</p>	<p> • 디지털 시장 법 (Digital Market Law) 및 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 Law) 등을 통해 게이트 키퍼 플랫폼의 데이터 결합 및 이동 시 소비자 보호와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p>
<p>기관중심 접근 (Entity-based approach)</p>	<p> • 핀테크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규제가 본격화</p> <p>• 금융 자회사 위주의 빅테크 규제. 당국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요구하며 국영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방안도 병행</p>

Source: BIS(2021.07), 'Fintech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financial services', IMF(2022.01.24), 'BigTech in Financial Service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금융산업 내 공정경쟁 필요성 제기와 금융규제혁신회의 진행



금융시장의 과도한 집중·의존 방지, 시장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 정비와 함께, 빅블러 시대에 대응하여 금융규제의 혁신을 도모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ppendix 4] 국내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창업 활성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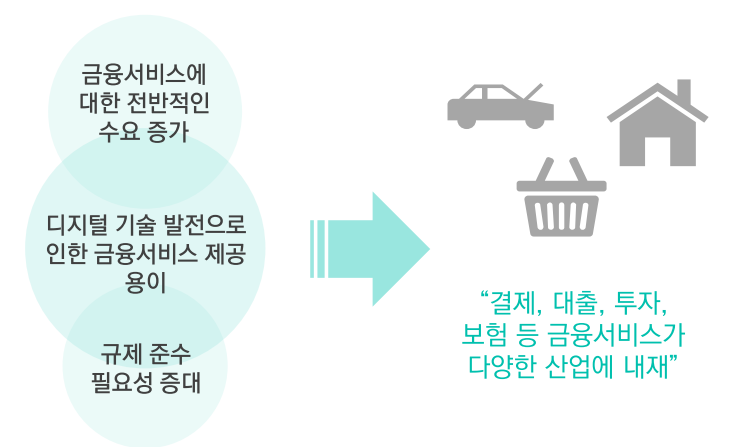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	국내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p>1. 핀테크 분야 금융지원 필요성 증대 - 주요국 금리상승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민간 모험자본 보수화, 투자규모 감소로 핀테크 산업 위축 우려</p> <p>2. 핀테크 기업의 성장동력 둔화 - 최근 혁신금융서비스의 핀테크 기업 지정건수와 지정비중 감소세,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 여건 취약성과 서비스 준비 시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력 필요</p> <p>3.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미흡 - 현지 정보 부족,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계 등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우나 해외시장은 잠재력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p> 	<p>(1)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p>	<p>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혁신펀드(성장금융) 총 2조 원 확충: 4년간(2020~2023) 0.5조 원에 이어 향후 4년간(2024~2027) 0.5조 원 추가 결성 <p>②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 2023년부터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대출·보증 공급 <p>③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다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하여 통합지원체계를 마련, 'K-Fintech 30' 선정하고 성장 지원
	<p>(2)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체계 고도화</p>	<p>①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상담창구 운영 내실화, 핀테크 컨설팅 내실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컨설팅 연계, 찾아가는 설명회 재개 <p>② 보육 및 네트워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창업·안착 지원, 핀테크 큐브 등 보육지원 확대, 우수 핀테크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 <p>③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한 핀테크 인력 양성, 현재 운영중인 핀테크 일자리 매칭과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매칭
	<p>(3)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p>	<p>① 해외진출 지원 전략 및 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서비스별로 시장상황, 서비스 경쟁력, 현지화 등 고려하여 해외진출 가능성을 평가하고 현지 정보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 지원 <p>② 해외 투자자 및 인력 Pool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등 해외투자자 및 인력 정보제공 확대 <p>③ 해외진출 관련 지원정보 집약 및 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사업 등 집적하여 초기 진출전략 수립부터 서비스 고도화까지 체계적 정보 제공

Source: 관계기관 합동(2022.12.30),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Trend 6. 필수가 된 임베디드 금융 (1/2)

임베디드 금융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 및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을 뜻함. 고객 경험과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금융기업들이 핀테크를 통해 일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베디드 솔루션 도입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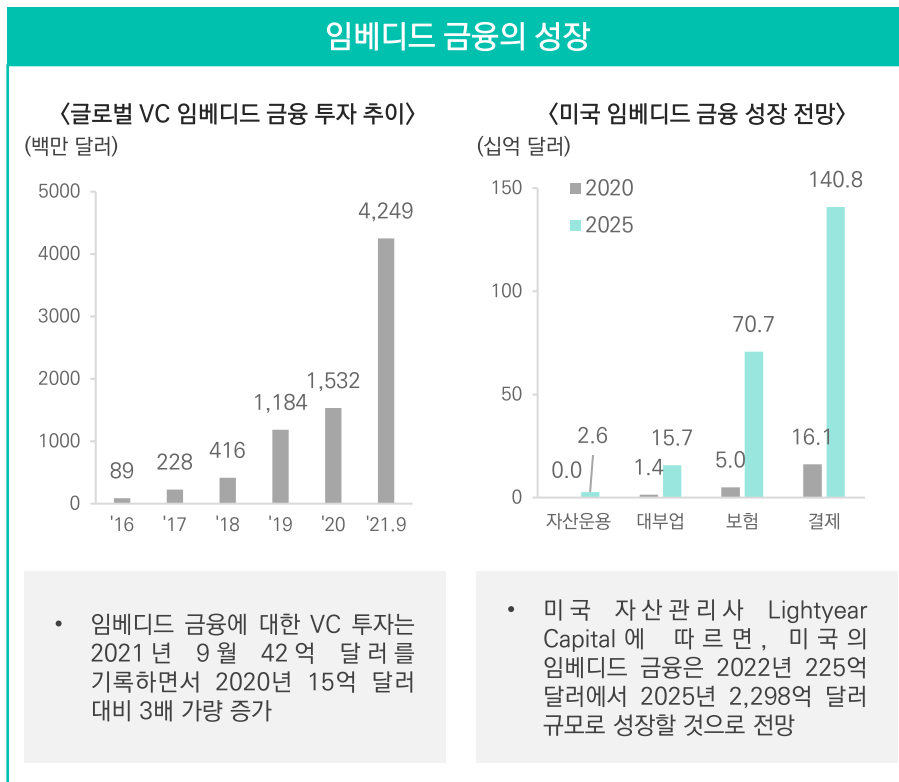
임베디드 금융의 정의와 주요 동인 및 이점

임베디드 금융의 정의	임베디드 금융 채택 및 확산 주요 동인	플레이어별 임베디드 금융의 이점
<p>임베디드 금융 (Embedded Finance)이란?</p> <p>임베디드 금융이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embed)하는 것을 말함</p>	 <p>금융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증가</p> <p>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금융서비스 제공 용이</p> <p>규제 준수 필요성 증대</p> <p>“결제, 대출, 투자, 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산업에 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장 및 사무실 폐쇄와 디지털·핀테크 서비스 수용 증가 등이 확산되면서 금융 서비스를 보다 단순화하고 접근하기 용이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베디드 금융이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침 	<p>플레이어별 임베디드 금융의 이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질적인 서비스에 집중 가능하며, 거래 과정에서의 불편함 감소로 고객이 상품구매를 완료할 가능성 증가,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 가능 핀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및 모바일뱅킹이 더욱 대중화되고, 핀테크사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증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 가능 금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융사에 금융기능 제공으로 수익 일부를 얻을 수 있으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여 다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음

Source: _자본시장연구원(2021.07),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성장과 규제’, 삼정KPMG 경제연구원

Trend 6. 필수가 된 임베디드 금융 (2/2)

임베디드 금융이 핀테크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제, 보험 분야에서의 임베디드 금융 활용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특히 해외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임베디드 금융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중임



해외 임베디드 금융 주요 사례

기업명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테슬라 (Tesla)	보험	• 자동차 시스템에 수집되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 운전자의 사고위험과 수리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한 자체 보험 제공
구글맵 (Google Map)	결제	• 네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미국 400개 이상 도시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람다스쿨 (Lambda)	대출	• 온라인 코딩 교육 사이트인 람다스쿨은 수업료 결제 시 할부, 미래소득 발생에 따른 지불계약 체결 등 직접거래를 통해 은행 대출을 대체
쇼피파이 (Shopify)	할부금융	• 캐나다 온라인 쇼핑플랫폼 쇼피파이는 어firm(Affirm)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 플랫폼 이용 고객이 50~3,000달러 금액의 상품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할부금융 서비스 제공
아마존 (Amazon)	대출	• 입주업체 대상 대출 프로그램인 아마존 렌딩(Amazon Lending) 운영
스타벅스 (Starbucks)	결제	•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스타벅스 카드를 충전하여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은행 간 수수료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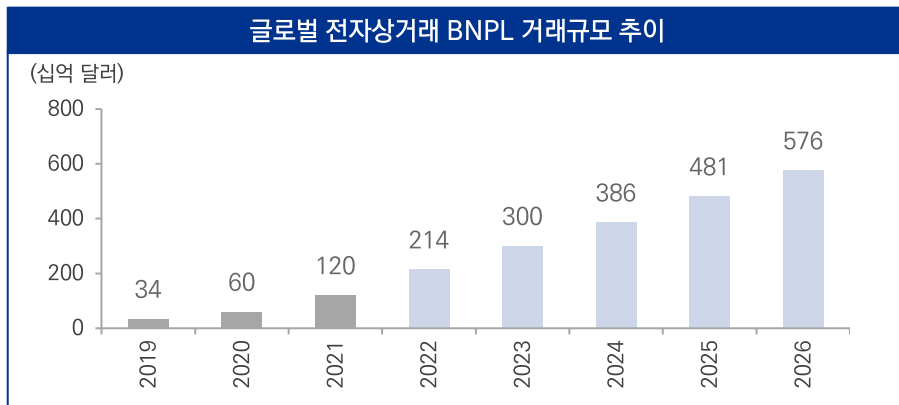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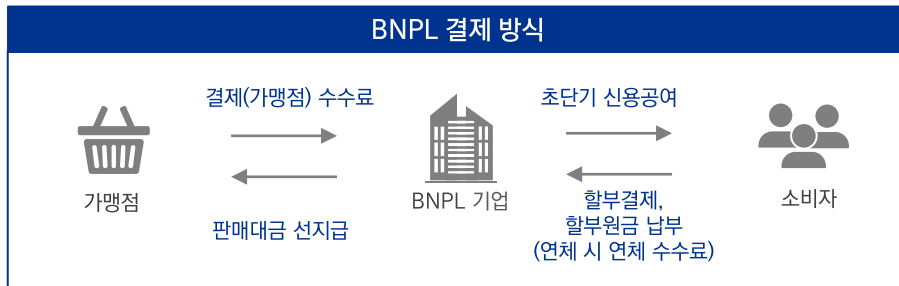
Source: Statista

Source: 자본시장연구원(2021.07),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성장과 규제',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Trend 7. BNPL의 성장과 리스크 부상 (1/2)

최근 신용이력이 없는 MZ세대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수요가 급증. 스웨덴 클라르나, 미국 어펌, 호주 애프터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어펌의 경우 2021년 1월 나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성장함. 뿐만 아니라 애플, 월마트 등도 BNPL 시장 진출 또는 진출을 예고하여 경쟁도 심화

BNPL 결제 방식과 거래규모 추이



Source: Statista, 삼정KPMG 경제연구원

국내외 주요 BNPL 서비스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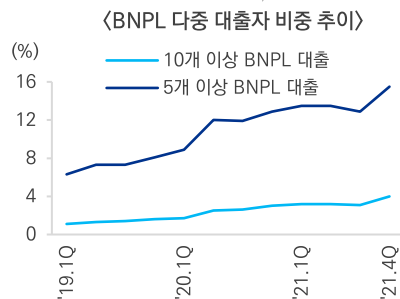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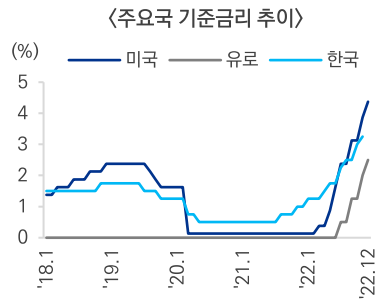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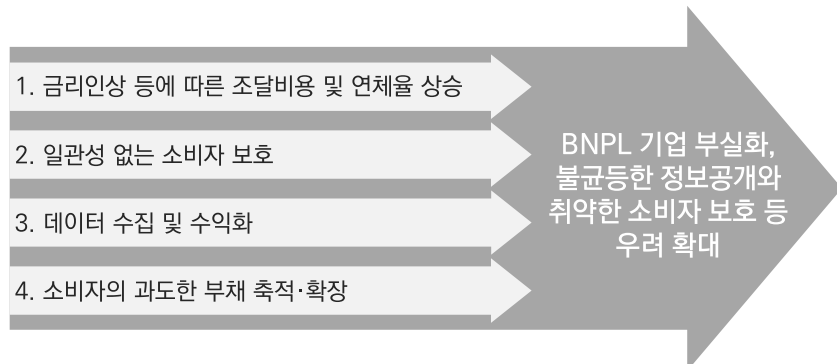
기업명	국가	설립연도	최근 BNPL 서비스 관련 동향
애프터페이 (AfterPay)	호주	2015	• 2021년 8월 미국 Block(舊 Square)에 인수되며 호주 M&A 역사상 최고가(290억 달러) 기록
집 (zip)	호주	2013	• 2021년 BNPL 기업 Twisto Payments, Spotii Holdings 인수
어펌 (Affirm)	미국	2012	• 2021년 1월 나스닥 상장(IPO) • 2021년 8월부터 아마존과 제휴하면서 아마존 고객에게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
클라르나 (Klarna)	스웨덴	2005	• 2021년 6월 소프트뱅크로부터 6.4억 달러 투자 유치 • 2021년 11월 영국 가격비교 서비스 기업 PriceRunner 인수(1.2억 달러)
페이팔 (Paypal)	미국	1998	• 2020년 8월 BNPL 서비스 'Pay in 4' 출시 • 2021년 9월 일본 BNPL 기업 Paidy 인수(27억 달러)
애플 (Apple)	미국	1976	• 2022년 6월 애플페이 이용해 6주에 걸쳐 4회 할부 결제가 가능한 자체 BNPL 서비스 'Apple Pay Later' 출시
네이버 파이낸셜	한국	2019	•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받아, 2021년 4월 30만 원 한도로 후불결제 시범 서비스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시작
오프널	한국	2017	• 2020년 9월 국내 BNPL 서비스 '소비의 미학' 출시 • 2022년 8월 신한캐피탈, 인포뱅크, 블록캐피탈로부터 Pre-A 단계 투자 유치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Trend 7. BNPL의 성장과 리스크 부상 (2/2)

무섭게 성장하고 있던 BNPL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과 맞물리며 BNPL 서비스 제공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대두. 이에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서 자국내 주요 BNPL 기업에 거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각국에서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BNPL 서비스 관련 우려 점증과 주요국 규제 논의 동향



국가	BNPL 서비스 관련 규제 논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12월 CFPB는 대표적인 BNPL 5개사에 거래동향 및 수수료, 보험사정 정책, 신용보고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하고, 2022.9월 BNPL 산업의 규제 수위를 현행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관리 규정/지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BNPL 사용에 대한 특정 규칙 설계 계획은 없으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 소비자신용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1월 BNPL 관련 공개 협의 종료하고 6월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까지 이해당사자의 피드백을 받아 연말까지 입법 초안 발의 예정이며, 2023년도 중반까지 의회에 2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건전성 감독청(APRA)은 2022.9.1일부터 모기지 대출 시 BNPL을 부채비율에 반영하기로 함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BNPL을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 아래 편입해 규제할 의사를 피력했으며, 호주 정부는 2023년 말까지 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통화청(MAS) 지침에 따라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는 2022.10.21일부터 BNPL 제공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시행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10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등 플랫폼 기업의 후불결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체 위험 문제가 제기 2022.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불결제 서비스에 신용카드와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됨

Source: 여신금융연구소(2022.09.29), 'BNPL 급성장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와 해외주요국 규제 동향', CFPB(2022.09),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Trend 8. 빅블러 시대 핀테크 파트너십 확대 (1/2)

글로벌 금융기업들은 핀테크와 협업이나 투자를 진행하면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임.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핀테크와의 협업을 원하는 금융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 간 파트너십 구축 시 서로 윈윈(Win-Win)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금융사의 핀테크 관련 전략 분류

	투자 종류	대표 기업
투자 모델	직접/VC 지분 투자	Citi,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BBVA, 웨스트팩, NAB, 시암커머셜
	VC 펀드 조성,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s)	
협업 모델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ICICI, YES 은행, SBI 인도, DBS, 코탁 마힌드라, RHB 은행, TP 은행, 메이뱅크, CBA, OCBC, StanChart, CMB 차이나
	해커톤(Hackathon) 등 핀테크 관련 이벤트	
	이노베이션 랩, 공동개발(Co-creation)	

전통 은행과 핀테크간 파트너십 구축 이점



Source: 국제금융센터(2021.08), '글로벌 은행권 7대 트렌드 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및 도전과제' 재인용

Trend 8. 빅블러 시대 핀테크 파트너십 확대 (2/2)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banking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 한계성 극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와 핀테크사 파트너십의 성공적인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 국내에서도 금융사들이 핀테크, 빅테크와의 업무협약이나 핀테크랩 운영 등을 통해 혁신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음

글로벌 금융사의 핀테크 파트너십 주요 사례

금융사	핀테크사	파트너십 내용
HSBC	Tradeshift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로 효율성과 가시성, 위험관리 역량 향상
Deutsche Bank	Traxpay	• 은행 오픈뱅킹에서 공급망 솔루션과 기술을 통합
N26	Wise	• 추가 수수료 없이 N26 은행 계좌를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한 API 플랫폼 도입
ABN AMRO	Subaio	• 사용자가 구독(반복 결제)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출시
American Express	i2c	• 플러그 앤 플레이 온보딩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핀테크 및 금융기관이 혁신 결제 솔루션을 더욱 빠르게 제공
Citi	IntraFi	• 기업 및 기관 고객이 초과 현금을 외국은행의 미국 지점으로 옮길 수 있는 Yankee Sweep 출시
Societe Generale	Smartkarma	• Smartkarma의 투자 리서치 플랫폼을 통해 리서치, 분석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업무 효율화
JP Morgan	Mosaic Smart Data	• 핀테크 기술 플랫폼 기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채권 트레이딩 수익성 개선

Source: BFSI(2022.05), 'Ten successful bank-FinTech partnerships that are generating revenue', 각사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국내 주요 금융사의 핀테크 관련 전략

전략적 협업

우리카드 X KB국민카드
담비에서 KB국민카드의 HUG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만나보세요

KB국민카드+베스트핀

- 베스트핀의 온라인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소개

우리은행 X NAVER FINANCIAL
우리는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

우리은행+네이버파이낸셜

- 전략적 업무협약 맺고 온라인 사업자 전용 무담보·신용대출 상품 출시, 스마트캠퍼스 사업 등 추진

금융플랫폼 FINDA
대출 서비스 시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핀다

- 데이터 기반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기업 핀다와 스파일러(Thin File) 전용 대출·신용카드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준비

핀테크랩 운영

신한 FUTURE'S LAB

신한퓨처스랩

- 2015년 출범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스케일업(Scale Up) 지원

1Q Agile Lab

하나원큐 애자일랩

- 하나은행의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5년 개소, 16주간 인큐베이팅 기간을 통해 아이디어 현실화

IBK 1st LAB

기업은행 퍼스트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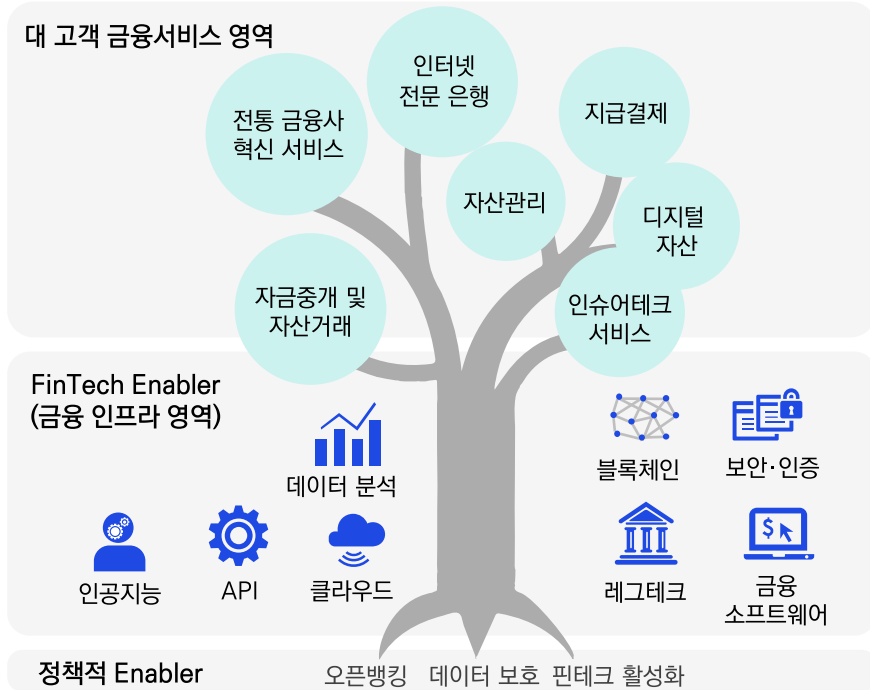
- 2019년 설립한 혁신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핀테크와 함께 사업화 진행

Source: 각사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Trend 9. 디지털금융 인프라 진화 – 신기술 활용성 증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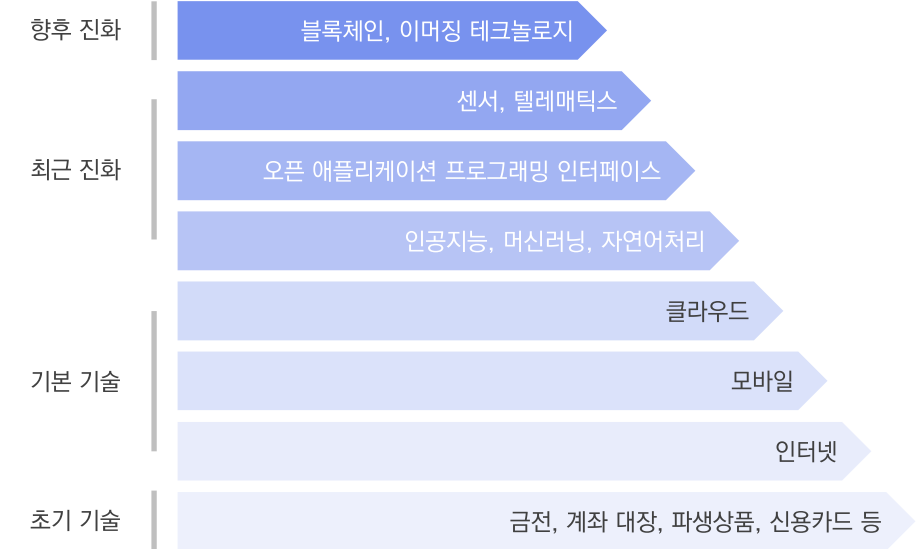
핀테크 기술은 금융시장 변화의 촉매제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지급결제, 자산관리, 디지털 자산 등 대고객 금융서비스 영역에 혁신을 불러 일으키면서 기존 금융서비스 방식이 변화할 수 있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금융 인프라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또한 진화

핀테크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Source: FSI(2020.01), 'FSI Insights on policy implementation No 23 Policy responses to fintech: a cross-country overview',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핀테크 기술 스택(Stack)



- MIT Sloan의 Gary Gensler 교수는 센서, 텔레매틱스 기술은 자동차, 건강 등 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향후 5~8년 동안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Source: MIT Management Sloan School(2021.02.04), 'Fintech, explained',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Trend 9. 디지털금융 인프라 진화 – 신기술 활용성 증대 (2/2)

핀테크 인프라의 발전은 핀테크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기술 스택의 진화·발전과 궤를 함께하며, 관련 스타트업은 투자 시장에서도 주목. 특히 API 기반 금융 서비스 관련 플랫폼 개발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러한 트렌드는 BaaS(Banking-as-a-Service) 또는 임베디드 금융 트렌드와 맞물리며 지속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주요 FinTech Enabler 최근 VC 투자 현황

기업	국가	사업부문	투자일	투자규모 (백만 달러)	투자단계
Drivewealth	미국	• 임베디드 금융 및 API 기반 중개 인프라 관련 금융 기술 시스템 개발	2021.10.05	735.3	Later Stage(Series D2)
Stripe	미국	• API 기반 결제 플랫폼	2021.03.14	600.0	Later Stage(Series H)
Mambu	네덜란드	• 디지털 금융 서비스 관련 은행 플랫폼 개발	2021.12.22	265.2	Later Stage(Series E)
Codat	영국	• 소기업 관련 금융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2022.06.01	107.5	Later Stage(Series C)
FintechOS	영국	• 금융기술 구축 방식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은행 플랫폼 개발	2021.11.01	60.0	Early Stage(Series B)
Yapily	영국	• 금융정보의 원활한 연결과 안전한 접근을 위한 개방형 은행 플랫폼 개발	2021.07.21	60.0	Early Stage(Series B)
RailsrBank	영국	• API를 통한 디지털 금융 경험 플랫폼 개발	2022.10.04	51.9	Later Stage(Series C)
Solaris	독일	• 은행 서비스 통합 관련 API 기반 BaaS 개발	2022.06.24	42.4	Later Stage
Upvest	독일	• 단일 투자 API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맞춤형 투자 상품 구축 지원	2022.06.17	42.0	Early Stage(Series B)
Weavr	영국	• API를 통해 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2022.01.10	40.3	Early Stage(Series A)
Toqio	영국	• 금융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통합 툴 개발	2022.09.29	20.0	Early Stage(Series A)
Swan	프랑스	• 은행 서비스의 통합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임베디드 금융 플랫폼 개발	2021.09.28	18.9	Early Stage(Series A)
Union54	잠비아	• 은행 파트너 또는 프로세서 없이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운영	2022.04.18	12.0	Seed Round
Hubuc	스페인	• 기업이 단일 플랫폼을 통해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베디드 금융 서비스 제공	2022.01.14	10.0	Seed Round
Method Financial	미국	• 설계를 단순화한 대출 및 부채 상환 API 개발	2021.10.01	2.5	Seed Round

Source: Pitchbook,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Trend 10. ESG에 스며드는 핀테크 (1/2)

팬데믹을 계기로 경제·사회적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으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부상하면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ing)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핀테크 및 빅테크의 역할도 부상

핀테크 및 빅테크가 지속가능발전(SDGs)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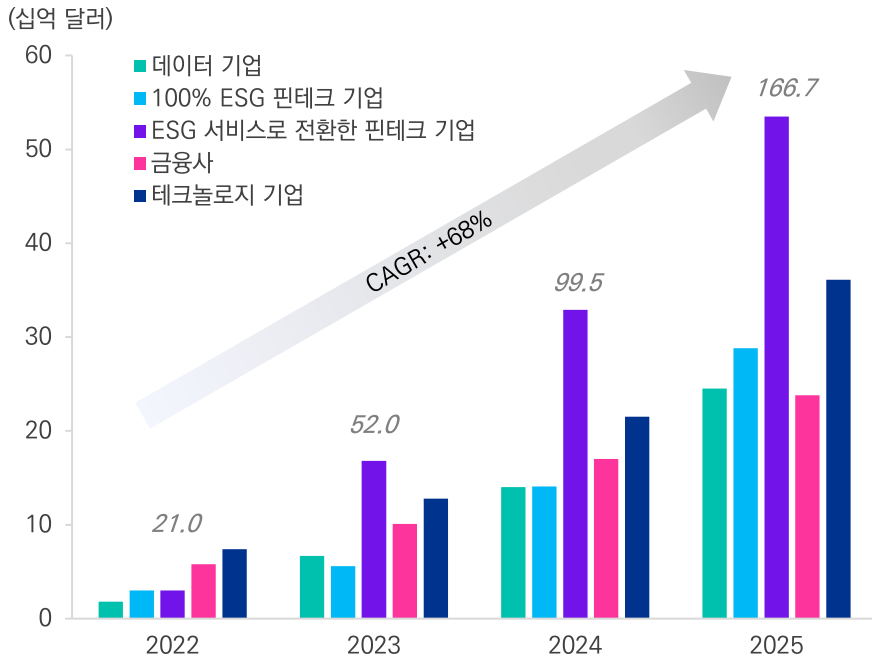
임팩트 수준 및 범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Tier 1 임팩트 : 대고객 금융 서비스 제공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 장기적/안정적 높은 기대수익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 금융·결제서비스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며 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가능성
Tier 2 임팩트 : 서비스, 운영, 인프라 및 프로세스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활용도 제고, 금융서비스의 통합과 지급결제 서비스 개선을 통한 탄력성 개선 • 헬스케어, 이커머스 등과의 주요 파트너십을 통한 건강과 복지 개선 • 환경 및 기후 이니셔티브 가입과 준수 지향 • 기술 개선으로 산업, 인프라,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 등 디지털 격차 발생 • 플랫폼 노동자 등 관련 일자리 질의 문제, 일자리 양극화 등 • 가격조작과 사기 행위 등 증가 • 자동차 및 신용대출 등 과도한 대출과 채무불이행 가능성
Tier3 임팩트 : 비즈니스 모델, 가치 사슬 및 생태계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국가 중심의 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 등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센터, 기술 인프라 제공, 높은 에너지 효율 제공 • 청정에너지, 환경 및 기후 이니셔티브 준수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회피 • 비즈니스 모델 융합 등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가능 • 소비주의 확산, 전자상거래 관련 위법 활동과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 가능 • 일부 빅테크의 투자활동 중 삼림 벌채 야기 • 세계적인 디지털 독점화 • 소셜 미디어 등과 연계된 지급결제 플랫폼 통합, 디지털 통화 등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성에 영향 초래

Source: Katherine Foster, Sofie Blakstad, Martijn Bos, Sangita Gazi, Charlotte Melkun and Becky Shapiro (2021), 'Technical Paper 1.1 Big Fintechs and their impac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DP & UNCDF 참고하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Trend 10. ESG에 스며드는 핀테크 (2/2)

ESG 핀테크 관련 투자는 2022년~2025년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SG 목표 연계 펀드 및 금융상품, AI 기반 기후 시나리오 모델링 등 ESG와 관련된 핀테크 기업이 주목 받고 있음. 또한 투자자의 ESG 성향과 연계된 포트폴리오 및 투자자문서비스, 탄소발자국과 연계된 소비자 금융상품 관련 핀테크 기업도 등장

글로벌 ESG 핀테크 관련 투자 전망



Source: KPMG Singapore(2022), 'Enabling tomorrow: The emergent ESG Fintech ecosystem'

ESG 관련 혁신 및 신생 핀테크 주요 기업

기업	국가	사업 내용
Arabesque	미국	• ESG 및 AI 기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 자문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
CSRHub	미국	• 커뮤니티, 직원, 환경,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기업 지속가능성 등급 및 순위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
Carbon Delta	스위스	• 위성 이미지 등을 통한 기후손실위험 측정
Clarity AI	미국	•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 이해관계자 지속가능성 평가
TrueValue Labs	미국	• AI 기반 ESG 정보 수집 및 처리
Joro	미국	• 탄소발자국 분석 등을 지급카드와 연계한 결제서비스
Mattrvest	싱가포르	• 대화형 기술과 자금관리 알고리즘을 통한 자금관리 플랫폼
Sust Global	미국	• 공급망 관련 기후 등 ESG 리스크 분석 등
Aspiration	미국	• 탄소중립 기업과 협력하여 나무심기 등 사업 진행하며 투자 포트폴리오 제공
OpenInvest	미국	• 개인별 ESG 가치에 따른 ESG투자 포트폴리오 제공

Source: Pitchbook, Statista,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국가는 본사소재국 기준이며, Pitchbook 및 공식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Contents

I. 핀테크 산업 투자 동향	2
II. 핀테크 산업의 주요 10대 트렌드	8
III. 결론 및 시사점	34

Key Takeaways

1. Market

비대면 채널 확보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선점

- 핀테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채널, 비현금 거래의 대중화가 지속
-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핀테크 투자 위축 기조가 관찰되지만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를 지향하는 각국 정부의 노력과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
-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비대면 플랫폼 채널 확보·강화가 필수적이며, 데이터 개방·공유 전략 모색으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

2. Regulation

규제 재정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 본격화,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금융사와 빅테크의 상생을 위한 시장 경쟁 촉진,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 소비자 및 데이터 보호 등 금융 규제 재정비가 진행 중
- 빅테크 및 핀테크 등 산업 내 플레이어들은 레버리지와 복잡성 등을 고려한 잠재위험 관리 및 소비자 중심 경영전략,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기술을 내재화한 금융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소비자 효용 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 기업 모두 규제 모니터링을 통한 신사업 영역 발굴 및 건전성, 소비자 보호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내 경쟁 촉진과 안정적 디지털 금융 생태계 형성을 위해 핀테크 발전·경영안정이 필요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 대상 자금조달 지원,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고도화 등 정부의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Key Takeaways

3. Competition

특화 서비스 모델
개발과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관련 투자

- 유통, 통신 등 다양한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금융사들은 생활 서비스 시장에 뛰어드는 등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고객을 모으는 것을 넘어 고객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시점
-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사만의 특화 사업 전략과 기존 비즈니스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대상을 국내 내수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금융사 및 빅테크 기업,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투자와 M&A, 협력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4. Customer

금융 소비자의 Pain
point 재고민과
고객경험 고도화

-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산업 내 비효율성을 줄이고 틈새시장 내 비즈니스를 창출하면서 금융 소비자에게 효익을 제공하며 성장해 왔으며, 코로나19와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핀테크 산업의 변화는 금융소비자의 빠른 선호 변화와 역동성을 시사함
- 천편일률적인 사업 모델을 타계할 혁신적인 핀테크 전략을 재검토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 개편 등을 고려하여 국내 IT 역량에 기반한 B2C 외 기술 기반 B2B, B2B2C, B2G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소비자 점점 확보를 넘어, 최상의 고객경험을 위한 플랫폼 금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 비즈니스와 연계된 타깃 고객 입장에서 고객경험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Digital Transformation & Fintech 전문 서비스팀

조재박
핀테크산업리더, Digital 본부장
T 02-2112-7514
E jaeparkjo@kr.kpmg.com

양현석
전무
T 02-2112-3009
E hyunseokyang@kr.kpmg.com

김세호
상무
T 02-2112-7879
E seihokim@kr.kpmg.com

황태영
상무
T 02-2112-0490
E taeyounghwang@kr.kpmg.com

최홍범
상무
T 02-2112-3200
E heunghumchoi@kr.kpmg.com

이동근
상무
T 02-2112-7587
E tongkeunlee@kr.kpmg.com

이지현
상무
T 02-2112-3054
E janenelee@kr.kpmg.com

최종원
상무
T 02-2112-0713
E jchoi16@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